

중위권 '반경기 차' 혼전... 자고나면 순위 바뀐다



7월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SSG 2루수 정준재가 5회말에 KIA 박민외의 플레이 타구를 우익수 최준우 연합뉴스

3위 SSG, 4위 롯데·kt 막상막하 두산PO 경쟁가세 순위싸움 치열 인천6연전 홈런이 승패 가를 변수 강타자 KIA 위즈덤·NC 김주원 기대

최근 프로야구 중위권 순위는 매일 바뀐다.



2위 한화 이글스와 3위 SSG 랜더스와 격차(8경기)보다, 3위 SSG와 9위 두산 베어스의 격차(6.5경기)가 좁다.

3위 SSG와 공동 4위 kt wiz, 롯데 자이언츠의 격차는 0.5경기에 불과하다.

두산이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에 가세하면서 중위권으로 분류되는 팀은 7개로 늘었다. 매일 '중위권 맞대결'이 펼쳐지는 이유다.

20일 롯데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선 SSG는 이번 주 3위 수성을 목표로 홈 6연전을 벌인다.

상대는 모두 순위 경쟁팀이다. 주중에는 8위 KIA 타이거즈, 주말에는 6위 NC 다이노스가 SSG와 맞붙는다.

SSG는 올 시즌 KIA에 4승 1무 5패로 밀렸고, NC를 상대로는 6승 1무 2패로 앞섰다.

타자 친화적인 인천 SSG 랜더스 필드를 홈으로 쓰는 SSG는 올해 홈구장에서 48 홈런을 치고 54 홈런을 내줬다.

최정(시즌 15홈런), 한유섬(12홈런), 기예르모 에레디아(9홈런) 등 기대했던 타자들의 부상과 부진 탓에 홈에서 대포 생산

이 줄었다. 중위권 싸움의 주요 변수가 될 이번 인천 6연전에서도 '홈런'은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홈런 2위 패트릭 위즈덤(30홈런), 지난주 타율 0.429의 맹타를 휘두른 나성범(이상 KIA), 후반기 OPS(출루율+장타율) 2위(1.14) 김주원, 지난해 홈런왕 맷 데이비슨(이상 NC) 등 강타자들이 인천 원정을 기다린다.

12연패 사슬을 끊은 롯데도 홈 부산 사직구장에서 kt, 두산과 차례대로 만난다. 전반기를 3위(승률 0.547·47승 3무 39패)로 마친 롯데는 후반기에 승률 0.400(12승 2무 18패)으로 처지면서, 공동 4위로 내려앉았다.

2003년 7월 이후 22년 만에 12연패 늪에 빠지기도 했다.

kt는 5위(승률 0.523·45승 3무 41패)로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에 14승 1무 16패(승률 0.467)로 주춤했으나 중위권 대혼전 속에 공동 4위에 자리했다.

두 팀은 주중에 포스트시즌 못지않은 총력전을 준비한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롯데가 kt에 6승 2무 4패로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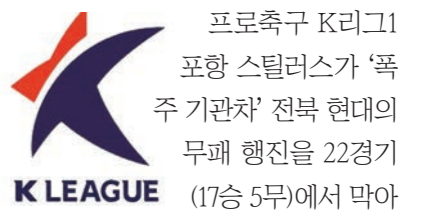
중위권 싸움을 더 뜨겁게 만든 두산은 7위 삼성 라이온즈와 홈 3연전을 벌인 뒤, 부산으로 이동해 롯데와 만난다. 롯데와 두산은 올 시즌 6승 6패로 맞섰다. 베이스에서 선수, 감독 생활을 한 김태형 롯데 감독과 롯데 주전 2루수였던 조성환 두산 감독대행의 자라대결도 주말 부산 경기 관전 포인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골 세리머니를 펼치는 (왼쪽부터)포항의 주녕요, 조르지, 오베르단. 한국프로축구연맹

포항 신바람 4연승 전복 무패 행진 '끝'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가 '독주 기관차' 전복 현대의 무패 행진을 22경기(17승 5무)에서 막아 세우고 '신바람 4연승'을 앞세워 3위로 올라섰다.

포항은 24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조르지의 멀티골을 앞세워 3-1로 이겼다.

4연승을 따낸 포항(승점 44)은 이날 FC안양(승점 30)에 2-3으로 패한 대전 하나시티즌(승점 42)을 4위로 끌어내리고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반면 3월16일 포항을 상대로 2-2로 비긴 이후 무려 22경기까지 정규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 온 선두 전북(승점 60·18승 6무 3패)은 5개월여 만에 시즌 3패째를 기록했다. 포항을 통해 시작된 전북의 무패 행진은 결국 포항을 통해 막을 내렸다. 15일 안양과 K리그1 26라운드를 치른 이후 충분히 쉬 포항은 20일 코리아컵 4강 1차전을 펼친 뒤 휴식 시간이 부족했던 전북을 전반전 초반부터 몰아쳤다. 포항은 전반전 키오프 12초 만에 조르지의 선제골로 전북을 역바꿔잡았다.

포항은 전반전 키오프 12초 만에 조르지의 선제골로 전북을 역바꿔잡았다.

PGA 164경기 만에... 플리트우드 집념의 우승컵

플레이오프 투어 챔피언십 제패... 최다 상금 139억 책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163경기 동안 우승과 연을 맺지 못했던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사진)가 첫 우승을 최다 상금 대회에서 따냈다. 플리트우드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조

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 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페덱스 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40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쳐 함께 18언더파 262타

로 우승했다.

플리트우드는 PGA 투어 164번째 출전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10위인 그에게는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상금을 번 선수'라는 답답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오랜 기다림 끝에 따낸 첫 우승은 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우승 상금이 걸렸

고, 시즌 최고 선수를 결정하는 투어 챔피언십에서 나왔다.

플리트우드는 우승 상금 1000만 달러(약 138억5900만 원)를 손에 넣었고 투어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인 북제 칼라마티 제인 퍼터와 함께 PGA 투어 플레이오프 우승자에 주는 페덱스컵 등 2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에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

박재혁 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벌콘텐츠